

SK하이닉스 토큰 거래 급증,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자산] 양현경 2122-9213 beeb2724@ifnsec.com

Check Point

- SK하이닉스 연계 토큰 상품의 24시간 거래대금은 SK하이닉스 본주 거래대금의 76.5%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1:1 담보형 토큰은 발행·상환 과정에서 본주 수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반면, 무기한선물은 헤지와 차익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
- 현재는 주식 토큰화 시장이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수급 효과를 발생하기보다 야간·주말 정보를 선반영하는 가격발견 기능 존재. 다만, 시장 확대 시 국내 증시의 수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전망

SK하이닉스 연계 토큰 상품의 24시간 거래대금은 SK하이닉스 본주 거래대금의 76.5%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7월 27일 CoinGlass 기준 SK하이닉스 연계 토큰 상품은 24시간 거래량 상위 20개 상품 가운데 각각 1위인 27.7억달러, 6위인 5.38억달러, 7위인 4.13억달러를 기록했다. 세 상품의 거래량을 합산하면 총 37.2억달러로, 달러-원 환율 1,470원을 적용할 경우 약 5.47조원에 해당한다. 이는 같은 날 SK하이닉스 본주 거래대금 약 7.15조원의 75% 수준이다. 다만 두 시장의 거래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량은 레버리지가 반영된 명목계약 금액으로, 동일 자금의 반복 매매와 상품 간 차익거래, 시장조성자의 양방향 거래가 모두 누적 집계된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운영되는 반면 국내 현물시장은 정규장 중심으로 거래된다는 차이도 존재한다. 따라서 5.47조원의 거래량 전체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신규 투자자금이나 본주 수급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본주 또는 ADR 매매로 연결되는 규모는 전체 명목 거래량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이 높다.

1:1 담보형 토큰과 무기한선물형 상품,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국내 증시 수급 영향

주식 토큰화 상품이 SK하이닉스 본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관련 상품은 실제 주식이나 ADR을 1:1로 담보하는 xStocks·Binance BStocks와 Hyperliquid·Binance Futures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선물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 담보형 토큰화 증권은 발행된 토큰에 대응하는 실제 주식이나 ADR을 수탁기관이 보유하는 구조다. 신규 토큰 수요가 증가해 순발행량이 늘어나면 발행사 또는 수탁기관이 기초자산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반대로 토큰 상환이 확대되면 담보자산 매각을 통해 본주 또는 ADR에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 담보형 상품의 본주 수급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량보다 토큰의 순발행량과 순상환량, 담보자산 보유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발행된 토큰이 투자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것만으로는 추가적인 본주 매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무기한선물형 상품은 기초주식의 실물 인도 없이 가격 변동분을 정산하는 파생계약이다. 투자자가 SK하이닉스 무기한선물을 매수하더라도 거래소나 발행사가 반드시 동일한 규모의 본주를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기한선물은 만기가 없는 대신 펀딩비를 통해 선물가격이 기초주식 가격에서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으면 일반적으로 매수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에 펀딩비를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매도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에 지급하는 구조다. 즉, 가격 연동은 기초주식의 실물 보유가 아니라 지수가격, 증거금, 펀딩비, 강제청산 장치를 통해 유지된다. 다만 시장조성자가 가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 SK하이닉스 본주나 ADR을 매매하거나, 토큰 상품과 현물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가 확대될 경우 간접적인 수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 토큰화 시장이 야간·주말 정보를 선반영하는 가격발견 기능 존재

현재 단계에서 SK하이닉스 연계 토큰 상품이 본주에 미치는 가장 뚜렷한 영향은 직접적인 수급보다 가격발견 기능에 있다. 국내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도 SK하이닉스 연계 토큰 상품은 미국 반도체주 움직임, 메모리 업황 전망, 환율과 기업 관련 뉴스 등을 반영하며 24시간 거래된다. 이에 따라 야간과 주말에 형성된 토큰 가격은 다음 거래일 SK하이닉스 시초가와 장 초반 투자심리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타이거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장 마감 이후 SK하이닉스 무기한선물 가격이 상승한 경우 다음 거래일 본주가 상승 출발한 비율은 95%, 무기한선물 가격이 하락한 경우 본주가 하락 출발한 비율은 78%로 나타났다. 이는 토큰 상품이 SK하이닉스 본주 가격을 직접 움직였다는 의미라기보다, 국내 증시가 열리지 않은 시간에 발생한 글로벌 정보를 먼저 반영하는 야간 선행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토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다음 거래일 국내 현물시장의 시초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다만, 현재 주식 토큰화 시장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시장 확대 시 국내 증시의 수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전망

현재 RWA.xyz에 따르면 글로벌 RWA 시장규모 약 369억달러인 가운데 주식 토큰화 시장은 18.6억달러 규모로 아직 초기 시장 단계이다. 주식 토큰화 시장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본주 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시장 규모와 유동성이 확대될수록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1:1 담보형 토큰의 순발행이 증가하면 발행사와 수탁기관의 본주 매입이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수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무기한선물 시장에서도 미결제약정이 누적되고 기관과 전문 시장조성자의 참여가 증가하면 델타헤지와 현·선물 차익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본주 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토큰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대되면 국내 증시 폐장 이후 형성된 가격이 단순한 시초가 참고지표를 넘어 국내 현물시장의 가격 형성 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격발견의 중심이 일부 시간대에서는 국내 현물시장보다 24시간 토큰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토큰 시장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과 함께, 야간·주말의 가격 급변과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 충격을 국내 증시로 전달하는 새로운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토큰 시장의 가격 급락이나 대규모 청산이 다음 거래일 국내 시장의 시초가 급락과 장 초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SK하이닉스 연계 토큰 상품은 본주 수급을 직접 좌우하기보다 국내 증시 폐장 이후의 정보를 반영하는 야간 가격발견 시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향후 1:1 담보형 토큰의 순발행량과 무기한선물 미결제약정, 시장조성자의 헤지 거래가 확대될 경우 국내 본주의 수급과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상위 자산: 금, 주식, 원유와 같은 RWA 자산이 20위권 다수 차지

순위	자산	가격	가격 (24 시간%)	편당 비율	거래량 (24 시간)	거래량 (24 시간%)	시가총액	OI	OI (1 시간%)	OI (24 시간%)	청산 (24 시간)
1	BTC	\$65635.7	+1.99%	0.0067%	\$32.39B	+65.71%	\$1.31T	\$48.45B	+0.42%	-0.50%	\$42.38M
2	ETH	\$1972.69	+4.79%	0.0061%	\$33.15B	+142.82%	\$237.19B	\$28.37B	+0.91%	+5.13%	\$112.29M
3	SOL	\$76.88	+2.60%	0.0091%	\$4.29B	+41.77%	\$44.55B	\$4.84B	+0.77%	-0.82%	\$6.10M
4	HYPE	\$60.248	+2.74%	0.0062%	\$1.14B	+6.77%	\$15.19B	\$2.49B	+0.19%	+0.99%	\$935.32K
5	XRP	\$1.1136	+1.41%	0.0085%	\$1.24B	+13.30%	\$69.27B	\$2.45B	+0.36%	+0.87%	\$1.20M
6	DOGE	\$0.07332	+0.01%	0.0087%	\$981.17M	-28.55%	\$12.45B	\$1.15B	+0.54%	+0.85%	\$681.14K
7	ZEC	\$506.26	+3.68%	0.0099%	\$993.79M	-13.15%	\$8.44B	\$949.08M	+0.91%	+2.32%	\$1.64M
8	XAU	\$4098.75	+0.82%	0.0013%	\$1.36B	+330.17%		\$888.61M	+2.12%	+0.28%	\$1.10M
9	BNB	\$576.94	+0.93%	0.0034%	\$314.70M	+31.84%	\$76.52B	\$858.70M	+0.35%	-1.68%	\$301.24K
10	SPCX	\$114.07	+1.92%	0.0019%	\$355.23M	-22.77%	\$1.52T	\$677.73M	+0.54%	-1.94%	\$325.16K
11	XAUT	\$4083.15	+0.71%	0.0056%	\$360.34M	+693.39%	\$2.50B	\$573.22M	+0.91%	+18.12%	\$14.75K
12	SKYHNIX	\$1238.59	+0.44%	0.1552%	\$2.61B	+586.61%		\$564.47M	-0.01%	+11.47%	\$1.24M
13	CL	\$84.24	-2.73%	-0.0145%	\$1.35B	+94.40%		\$528.11M	-0.95%	-9.12%	\$3.63M
14	MU	\$956.62	+2.23%	0.0021%	\$574.37M	+165.32%	\$1.04T	\$526.66M	+3.40%	+6.75%	\$332.70K
15	SKHX	\$1237	+0.70%	0.0080%	\$390.64M	+624.25%		\$514.25M	+1.10%	+3.42%	\$0
16	SUI	\$0.7231	+0.36%	0.0058%	\$338.32M	+25.79%	\$2.91B	\$499.87M	+0.96%	+0.95%	\$148.63K
17	SNDK	\$1401.74	+2.56%	0.0019%	\$1.12B	+127.98%	\$212.74B	\$496.48M	+0.35%	-0.78%	\$734.87K
18	SP500	\$7450	+0.27%	-0.0004%	\$117.00M	+222.52%		\$486.99M	+0.89%	+3.18%	\$5.92
19	LINK	\$8.876	+5.29%	0.0052%	\$263.58M	+95.86%	\$6.59B	\$468.33M	+1.81%	+10.42%	\$1.18M
20	NEAR	\$1.857	+3.63%	0.0095%	\$191.02M	+30.78%	\$2.41B	\$424.29M	+0.49%	+2.13%	\$257.68K

자료: Coinglass, iM증권 리서치본부

글로벌 주식 토큰화 상위 거래량 순위: SK하이닉스 연계 토큰 상품이 24시간 거래량 상위 20개 가운데 3개를 차지

순위	자산	가격	가격 변동률 (24 시간)	편당 비율	거래량 (24 시간)	거래량 변동률 (24 시간)	시가총액	OI	OI 변동률 (1 시간)	OI 변동률 (24 시간)	청산 (24 시간)
1	SKHYNIX	\$1,238.03	+1.00%	0.0453%	\$2.77B	+573.95%	-	\$549.92M	-0.36%	+9.52%	\$1.68M
2	SNDK	\$1,503.29	+3.41%	0.0010%	\$1.30B	+159.52%	\$212.74B	\$507.56M	+0.47%	+0.23%	\$1.37M
3	KORU	\$19.57	+1.87%	0.0029%	\$769.88M	+603.48%	-	\$98.22M	+0.34%	+16.54%	\$1.03M
4	SOXL	\$148.47	+3.51%	0.0008%	\$688.64M	+317.90%	\$7.03B	\$171.80M	-0.54%	+0.57%	\$358.08K
5	MU	\$957.25	+2.21%	0.0011%	\$635.60M	+186.40%	\$1.04T	\$535.94M	+0.14%	+8.03%	\$728.27K
6	SKHY	\$164.22	+2.16%	-0.0012%	\$537.86M	+182.94%	-	\$255.75M	+0.88%	+2.96%	\$503.26K
7	SKHX	\$1,235.20	+1.05%	0.0055%	\$412.59M	+613.36%	-	\$509.45M	-0.16%	+2.81%	\$0
8	SPCX	\$114.50	+2.22%	0.0024%	\$393.83M	-12.78%	\$1.52T	\$677.16M	+0.03%	-2.29%	\$899.84K
9	CXMT	\$6.937	+13.41%	-0.1726%	\$295.93M	+1,524.70%	-	\$97.42M	-2.58%	+50.73%	\$438.26K
10	DRAM	\$55.94	+2.08%	0.0011%	\$228.21M	+376.81%	-	\$171.76M	-0.77%	+2.39%	\$12.33K
11	EWY	\$168.45	+0.57%	0.0030%	\$180.32M	+389.96%	\$2.92B	\$54.80M	-1.08%	-5.98%	\$60.20K
12	XYZ100	\$28,545	+0.81%	0.0006%	\$162.75M	+311.96%	-	\$285.73M	-0.03%	-1.21%	\$0
13	SP500	\$7,447.60	+0.20%	-0.0005%	\$123.73M	+249.36%	-	\$488.05M	-0.05%	+3.51%	\$5.92
14	SAMSUNG	\$173.26	+0.46%	0.0549%	\$117.99M	+460.11%	\$1.14T	\$46.66M	-0.68%	+2.48%	\$94.66K
15	INTC	\$95.06	+0.87%	0.0009%	\$104.61M	+228.52%	\$465.66B	\$117.15M	+0.07%	+3.17%	\$41.66K
16	QQQ	\$694.91	+0.76%	0.0141%	\$83.20M	+139.21%	\$231.73B	\$107.18M	+0.13%	+1.15%	\$53.89K
17	TSLA	\$317.38	+1.22%	0.0216%	\$74.24M	+155.75%	\$1.24T	\$153.06M	+0.64%	+2.32%	\$158.33K
18	SNXX	\$15.66	+5.67%	0.0025%	\$58.69M	+175.50%	-	\$11.32M	-3.04%	-5.05%	\$114.01K
19	NVDA	\$209.38	+0.58%	0.0034%	\$53.97M	+393.48%	\$5.01T	\$212.32M	+0.14%	+1.84%	\$21.41K
20	GOOGL	\$324.63	+1.26%	0.0089%	\$50.82M	+32.77%	\$3.90T	\$256.51M	+0.08%	-0.14%	\$47.79K

자료: Coinglass,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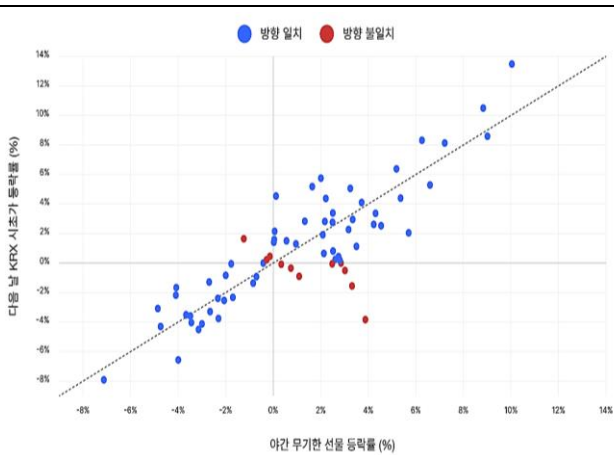
SK하이닉스 관련 토큰화 거래대금 SK하이닉스 현물 거래대금의 76% 차지. 다만, 레버리지가 반영된 명목금액인 점 고려할 필요

티커	24시간 거래대금
SKHYNIX	27.7억 달러
SKHY	5.38억 달러
SKHX	4.13억 달러
합계	37.2억 달러
원·달러 환율 1,470 원 적용	5.47 조 원
SK하이닉스 현물 거래대금(7.27 일)	7.15 조원

SK하이닉스 토큰화 거래대금이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의 약 76% 차지. 다만,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레버리지가 반영된 명목금액이며 24시간 거래되고 있어 한국 정규장 거래대금과는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 존재

자료: Coinglass, KRX, iM증권 리서치본부

야간 무기한 선물 등락-다음날 현물 시장 시초가 등락 비교(삼성전자)



자료: 타이거리서치, iM증권 리서치본부

주식 토큰화 상품 구조(1:1 담보형 토큰화 증권, 무기한 선물형)에 따라 본주 영향 경로 상이

구분	1:1 담보형 토큰화 증권	무기한선물형
구조	실제 주식·ETF를 수탁하고 대응하는 토큰 발행	주가·지수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계약
기초주식 실제 보유	발행량에 대응해 실제 주식 보유	원칙적으로 불필요
투자자 권리	기초주식 경제적 성과에 대한 권리	주가 등락에 따른 계약상 손익
주주권	일반적으로 직접 주주권은 제한적	없음
레버리지	일반적으로 없음	가능(50 배)
편당비	일반적으로 없음	존재
본주 매입	신규 토큰 발행 시 본주 매입	일반적으로 매입 X
사례	xStocks, Binance bStocks	Hyperliquid 무기한선물, Binance Futures 무기한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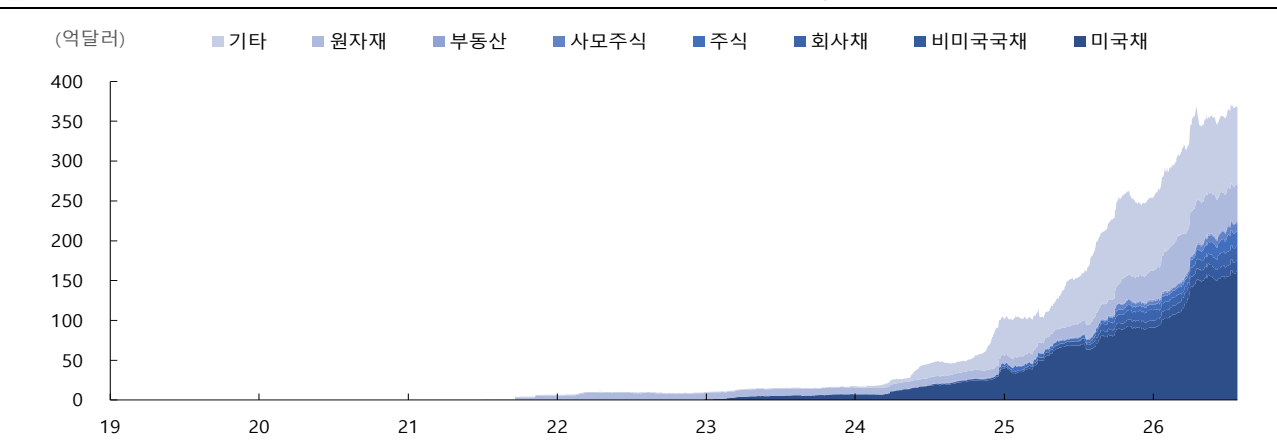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무기한선물의 다음 거래일 시초가 예측력

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석
상승 신호 적중률	82%	95%	장 마감 후 무기한선물 상승했을 때, 다음 날 본주가 상승 출발한 비율
하락 신호 적중률	96%	78%	장 마감 후 무기한선물 하락했을 때, 다음 날 본주가 하락 출발한 비율
전체 방향 일치율	약 85%	약 85%	무기한선물의 등락 방향과 다음 날 시초가 방향이 일치한 비율
등락률 상관계수	0.85	0.89	무기한선물 등락률과 본주 개장값 간 동행 정도
개장값 회귀계수	0.93	1.00	무기한선물 1% 변동 시 다음 날 시초가가 반영한 평균 변동폭
주말 방향 일치율	93%	87%	금요일 종가 이후 무기한선물 방향과 월요일 시초가 방향이 일치한 비율

자료: 타이거리서치, iM증권 리서치본부

글로벌 RWA 시장규모 약 369억달러인 가운데 주식 토큰화 시장은 18.6억달러 규모로 아직 초기 시장 단계



자료: RWA.xyz,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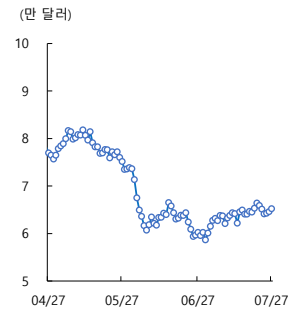
전주 Digital Asset Comment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빅테크의 AI 수익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 비트코인은 6만4,000~6만6,000달러 박스권에서 등락을 지속함. 비트코인 현물 ETF는 7월 중순 이후 순유입 흐름을 이어갔으나, 주 후반 들어 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됨. 이에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대에서 등락한 가운데, 금주 7월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유입되며 박스권 장세를 지속함. 한편 윤리조항을 포함한 CLARITY Act 수정안이 발표됐으나, 민주당은 윤리·소비자 보호·불법 금융 대응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며 반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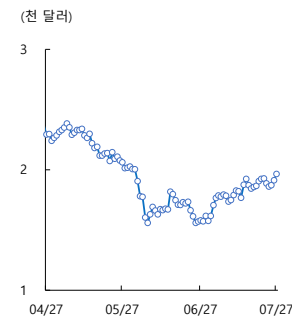
가상자산 News Flow

주요기사	언론사, 날짜
스테이블코인 담는 삼성월렛...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	조선일보 7.24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수익률 하락 지속 땀 구조조정 검토 가능	디지털투데이 7.26
코인 거래소들, CXMT 파생상품 출시...규제 우회	SBS NEWS 7.27
美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한 2주...윤리 조항 이견 여전	Bloombergbit 7.27
글로벌 코인거래소 현물 거래 74% '뚝'...비트코인 6.5만달러[코인브리핑]	뉴스1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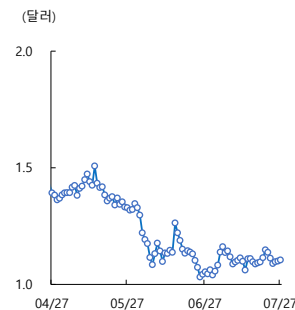
비트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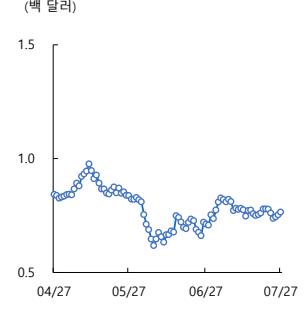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일주일간 수익률 상위 종목(시총 주요 종목 기준)

순위	종목명	1D (%)	1W (%)	1M (%)	1Y (%)	증가 (\$)	시총 (\$1M)
1	유니스wap	-1.8	4.9	29.2	-64.0	3.8	2,424
2	모네로	-2.1	3.6	11.1	8.4	348.5	6,462
3	이더리움	1.7	2.1	23.2	-48.1	1945.3	238,142
4	메이커	0.0	2.0	5.6	-41.9	1325.5	711
5	체인링크	0.5	0.6	17.6	-53.3	8.6	6,568
6	BNB	0.3	0.3	2.7	-26.7	574.0	76,357
7	트론	-1.3	0.3	2.3	444.0	0.3	31,312
8	랩트 비트코인	0.1	0.1	8.1	-45.9	63977.2	7,588
9	USDC	0.0	0.0	0.0	0.0	1.0	72,490
10	테더	0.0	0.0	0.0	-0.1	1.0	183,874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일주일간 수익률 하위 종목(시총 주요 종목 기준)

순위	종목명	1D (%)	1W (%)	1M (%)	1Y (%)	증가 (\$)	시총 (\$1M)
1	팬텀	-10.3	-17.5	-20.4	-93.2	0.0	70
2	제트캐시	-0.6	-10.8	22.3	1092.0	489.6	8,419
3	코스모스	-3.3	-10.0	-14.9	-72.0	1.3	720
4	테라 클래식	-3.7	-8.8	-16.1	-17.5	0.0	295
5	테조스	-5.3	-8.2	-2.5	-76.8	0.2	236
6	바이직어텐션토큰	-4.5	-6.6	-14.6	-56.2	0.1	112
7	엑시 인피니티	-3.8	-6.3	-11.7	-66.4	0.9	146
8	카르다노	-3.2	-6.3	9.4	-80.8	0.2	6,158
9	샌드	-1.8	-6.1	-5.7	-85.6	0.0	132
10	대시	-0.7	-5.9	-3.3	42.5	32.3	407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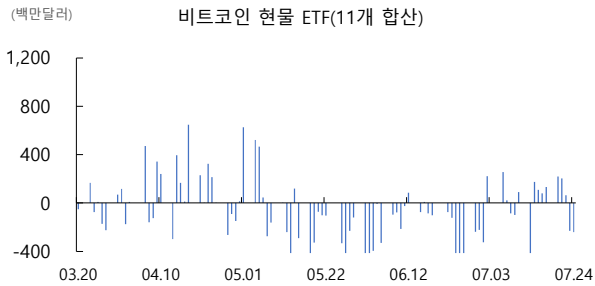
전주 일주일간 거래대금 상위 ETF(주요 종목 기준)

구분	티커	수익률(1W, %)	AUM(\$1B)	운용보수	거래대금(1W, \$1M)	배당수익률	연배당 횟수
비트코인 선물	BITO	-0.34	1.40	0.95%	13,951	59.90%	월배당
비트코인 현물	IBIT	-0.43	47.43	0.25%	6,066	-	-
이더리움 현물	ETHA	-2.82	5.42	0.25%	2,046	-	-
비트코인 현물	FBTC	-0.27	11.05	0.25%	622	-	-
비트코인 현물	GBTC	-0.30	8.56	1.50%	267	-	-
비트코인 현물	BTC	-0.28	3.77	0.15%	183	-	-
이더리움 현물	ETH	-2.51	1.57	0%	164	-	-
비트코인 현물	BITB	-0.28	2.35	0.20%	152	-	-
비트코인 현물	ARKB	-0.37	2.18	0.21%	141	-	-
이더리움 현물	FETH	-2.56	0.90	0.25%	122	-	-

자료: Bloomberg, ETF Check,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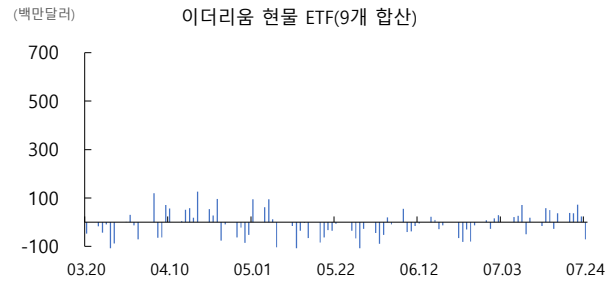
주) 높은 배당수익률은 비트코인 선물차익을 분배금으로 나눠주기 때문. 코인 상승장에서는 분배금이 많으나 하락장에서는 줄어드는 특징 존재

비트코인 ETF 펀드 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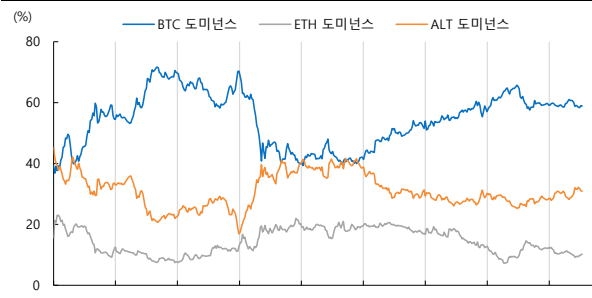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이더리움 ETF 펀드 플로우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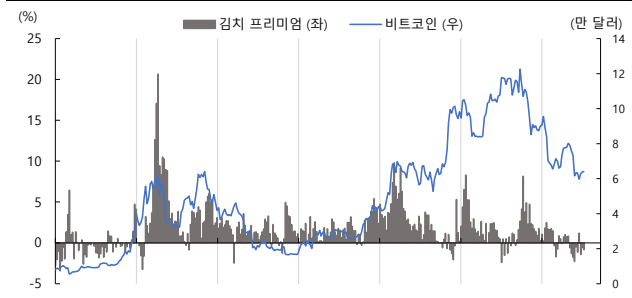
비트코인/이더리움/알트코인 도미넌스



자료: Trading View,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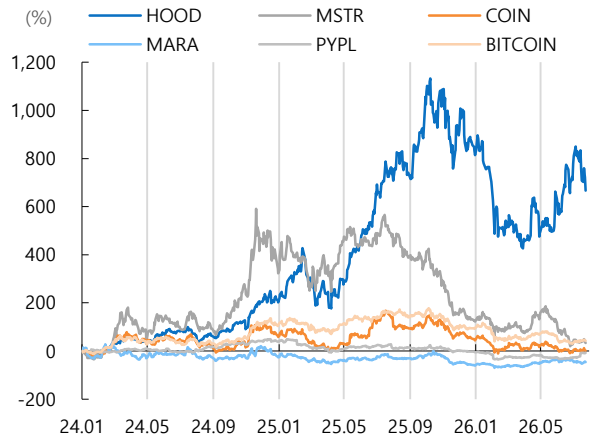
주) 도미넌스란 전체 시가총액에서 해당 자산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비트코인 가격과 김치 프리미엄



자료: Trading View, iM증권 리서치본부

가상화폐 관련 상장사 주가 수익률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코인 및 자산별 상관관계(3M)

구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솔라나
S&P 500	-0.34	-0.36	-0.31	-0.42	-0.10
Nasdaq	-0.34	-0.45	-0.25	-0.56	-0.23
미국채 2Y	-0.73	-0.70	-0.77	-0.37	-0.54
미국채 10Y	-0.24	-0.20	-0.29	-0.05	-0.15
DXY	-0.88	-0.83	-0.92	-0.48	-0.64
WTI	0.82	0.80	0.83	0.47	0.53
금	0.90	0.83	0.95	0.42	0.70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현경)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